

모두 발언

2026. 9. 23.(수) 07:30

금융감독원 (11F)

상기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이 찬 진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침 일찍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은행연합회장님과 은행지주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금융권은 안팎으로
‘변화와 전환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거시경제의 전환기를 지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금년 하반기 8개 은행지주그룹에서
은행장을 포함하여
70여개 자회사의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현안에서
궂직한 변화가 교차하는 시기일수록

굳건한 기초체력과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원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
시장의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가 허심탄회하게 지혜를 모으는
건설적인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Ⅱ 당부 말씀

논의에 앞서
회장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회사
CEO가 선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오랜 시간 함께 머리를 맞대고
CEO의 참호구축은 지양하고,
승계절차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은행지주 산하 상당수 자회사의
CEO 승계 절차가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는
그간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충신 ‘기황양’은
임금에게 인재를 천거할 때
밖으로는 원수를 피하지 않고,
안으로는 아들도 피하지 않는
‘대공무사(大公無私)’의 자세로
그 자리의 책임자를 추천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사로움 없이 공정하게
오직 그 자리에 합당한
자격과 능력을 중시한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보호까지 책임질 CEO의 선임 절차도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에 기반한 책임자를 선별하는 절차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CEO가 지녀야 할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평가 단계별 최소한의 검증기간 등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절차를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지주사는
선임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미흡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지주회사의 자추위(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는
CEO 후보 추천, 검증 및 선정 과정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과 모범관행의 취지에 따라
자회사의 임추위(임원 후보추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CEO 상시후보군 등 충분한 정보 제공, CEO 후보 평가시 임추위원의 의견 반영 등

다음으로 지자체 금고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당부드립니다.

올해 말로 금고 운영 계약이
종료되는 지자체의
신규 금고은행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금고 운영은
거액의 지자체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해당 지역 내 주민, 기업과 연계된
다양한 부수적인 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사업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최근 입찰 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본력의 우위가 있는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모습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금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지자체 금고 운영을
이해타산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감원도
은행의 지자체에 대한 협력사업비 지출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더욱더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고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 은행권 금융사고 현황 : ('23년) 33건, 696.9억원 → ('26.1~7월) 47건, 1,708.2억원

그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제도개선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나,

* 내부통제 혁신방안('23년),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24년), 책무구조도 도입('25년) 등

최근의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사기*와
본점의 내부통제가 닿기 어려운
해외 점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소득·재직증명서 위변조, 담보평가액 부풀리기, 허위 분양계약서 이용 등

‘아무리 완벽한 제도라도 스스로 굴러갈 수는 없다’는
맹자의 말처럼
현장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제도개선도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 도법불능이자행(徒法不能以自行)

지주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가
경영 전반에 걸쳐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책임 있는 실행이 뒷받침되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도 앞으로는
위규 행위 발생 시
평가·보상체계가 걱정했는지,
조직 차원의 유인은 없었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점까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Ⅲ 마무리 말씀

시장과 국민의 신뢰 없이
금융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부드린 사항은
모두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들께서도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금융회사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도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